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2026. 4.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

※ 데이터 출처: 202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 (총액 감소) '25년 초중고사교육비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
- ◆ (참여율 감소)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 대비 **4.3%p 감소**
- ◆ (1인당) 전체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4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6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이나, **증가율 둔화**

□ 학교급별: 초등 저학년 및 중 3학년 크게 감소

- (전체1인당 사교육비) 특히 ①초 1~3학년($\Delta 6.6\%$, $\Delta 9.9\%$, $\Delta 8.3\%$) 및 ②중 3학년($\Delta 7.7\%$)에서 크게 감소 ※ (참여 1인당) 초 1~3학년 중 3학년만 감소
- (사교육 참여율) ②중학교가 전(全)학교급 중 가장 큰 폭 감소
※ (참여율) 초 84.4%($\Delta 3.3\%p$) / 중 73.0%($\Delta 5.0\%p$) / 고 63.0%($\Delta 4.3\%p$)

- ▶ ① 돌봄·방과후 전국 확대로 인한 초등 저학년 돌봄·교육 공백 해소 효과 추정
※ (돌봄) 초1 27.4만명, 초2 27.7만명, 총 55.2만명 참여(참여율 81.3%, 희망자 전원, '25.3월 기준)
※ (방과후학교)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 42.4%('25)
 - ▶ ②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전환('23년) 등으로 중학생* 사교육 의존 일부 완화 판단
※ 회원 수: ('24.12월) 458,535명 → ('25.12월) 618,879명(160,344명 ↑)
- ⇒ **돌봄·방과후, EBS 등 학교급·학년별 학습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 과목별: 논술, 예체능, 진로·진학 상담 과목 교육적 수요 ↑

- (일반교과 ①논술) 일반교과는 모든 학교급·학년에서 참여율 감소($\Delta 8.4\%$)
했으나, 논술($\Delta 0.6\%$)은 초 4,6학년, 중 1학년, 고등학교급에서 소폭 증가*
* (논술 참여율) 초 4(0.6%p ↑), 초 6(0.4%p ↑), 중 1(0.7%p ↑), 고등학교(0.4%p ↑)
- (②예체능) 참여율은 감소($\Delta 0.7\%p$)하였으나 전체1인당 사교육비 증가(4.1% ↑)
※ (수강목적) 1위: 취미·교양·재능개발(63.2%) / 2위: 보육(14.3%)
- (③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 학습 상담 사교육 참여율 전(全)학교급 증가*
* (참여율) 전체 2.9%(0.4%p ↑), 초 1.8%(0.3%p ↑), 중 2.5%(0.1%p ↑), 고 5.3%(0.8%p ↑)

- ▶ ① 논술 교과의 중등교육 및 준비단계 학습 수요 대응한 지원 강화 필요
 - ▶ ② 자녀 재능개발, 보육 목적의 예체능 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 흡수 필요
 - ▶ ③ 진로·진학 학습 상담 사교육 수요 증가가 목격되므로 정책적 초기 대응 필요
- ⇒ **예체능, 논술, 진로·진학상담 관련 교육 지원 강화 필요**

추진 방향

①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여 맞춤형 공교육 정책 개선

- 자녀 돌봄과 다양한 교과·교양·예체능 목적인 초등과 상급학교 진학 목적인 중등 사교육 수요를 구분하여 공적 체계에서 흡수

② 학생의 정확한 성취를 진단하고, 분석에 기반해 국가책임 강화

- 기초학력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누적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일찍부터 개인별 맞춤 지도 실시

③ 교실에서부터 충분한 독서·토론 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 함양

-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질문하는 힘을 읽기와 글쓰기, 토론으로 학교에서 길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

④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교육 신뢰성 제고

- 학교-가정 간의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한 사교육 추가 진입 요인을 완화하도록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체계 내실화

⑤ 시도 간 양질의 정책 경쟁을 장려하고 자율사업 지원 등으로 환류

-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교육 경감 정책·사업 우수모델을 발굴해 전국 단위로 확산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환류 체계화

⑥ 학원의 교육 공정성 준수 철저 및 점검 강화

- 문항 거래 등 학원의 교육 공정성 위반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향 등 불법행위 제재 강화

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공교육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 의존 구조 개선

추진 전략

- 맞춤형 돌봄·학습 지원과 독서·토론 교육 강화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 완화
- 정보 격차 해소, 입시 상담 체계 개선으로 학교 신뢰를 회복하고, 학원 모니터링 등 시도와 함께 사교육 관리 체계 강화

추진 과제

공교육 책임 성장기반 조성

- 1 돌봄 내실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확대
27년 신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사용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 2 체육·예술 교육 강화
27년 신규 모든 초등학교의 방과후 1인 1예술 또는 1인 1스포츠 신규 지원
- 3 정확한 학생의 학습수준 진단과 정보 제공

학교 기반의 문해력과 기초학력 신장

- 1 독서·토론·글쓰기를 통한 문해력·사고력 강화
27년 신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교육 확대
- 2 개인별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 3 모든 학생에게 고른 학습기회 제공

진로·진학 설계와 자기주도학습 지원 내실화

- 1 진로·진학 공공 상담체계 강화
27년 신규 중3·고1 진로·진학 상담 연 1회 이상 실시
- 2 지자체·학교 등 공영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
27년 신규 시도의 자율적인 공공 학습센터 운영 지원
- 3 양질의 EBS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

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

- 1 학원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 2 교원의 겸직 관리 철저
- 3 시도교육청 협력 강화

1 돌봄 내실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확대

- ◆ (현황) 학교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의 선택지와 수준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지역 및 학교별로 상이해 3·4학년 이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구조
- ◆ (대응) 사실상의 3시 하교가 가능하도록 방과후 돌봄·교육을 지원하고 방과후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원 의존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
 - ※ (2025 KEDI POLL)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 - 초등 돌봄 및 방과 후 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19.7%)(1위)

- (돌봄·교육 내실화) 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 초1·2의 사실상 3시 하교 보장
 - * '초1·2 희망자 전원 참여' 원칙을 준수하면서, ①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 ② 추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 ③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편성 등
 -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가 돌봄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방학·주말·야간 등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지역사회가 집중 지원
 - ※ 지역별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구성·운영('26.2월 208개 기초지자체(92%)에서 구성)
 - ※ (사례) 인천 서구 청소년센터 4개에서 방학 및 주말을 중심으로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 대학, 전문 기관 등과 연계하여 소외지역 학교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지원 확대
 - ※ '26.1학기 소외지역에 1,544개 프로그램, 특색분야 718개 프로그램 공급(창의재단)
- (방과후교육 지원 확대) '26년 희망하는 초3에게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50만원)을 ('26년) 초3 인원의 70%까지 지원 목표, ('27년) 초4까지로 단계적 확대 **신규**
 -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 : ('25) 42.4% → ('26.3월) 57.2%(+14.8%p)
 - ※ 당초 : ('26년) 초3 60% 대상 제공 → ('27년) 대상 확대여부 '26년 중 검토
확대 : ('26년) 희망 지역은 초3 70%까지 제공('26년 특교 175억원 추가) → ('27년) 초4 대상 제공
 - 초등 고학년이 희망하는 AI, 교과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 신설('26.2학기, 특교 50억원 추가)

27년 신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사용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직장 근무시간과 학교 프로그램 시간 차이가 있어 학원을 보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센터 등 학교 주변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대구 학부모)

- ▶ 여건이 되는 교육청부터 공공·비영리기관(청소년수련시설, 구민회관 등) 등이 학교와 연계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처 순차적 확대

2 체육·예술 교육 강화

- ◆ (현황) 일반교과의 사교육비 지출은 하락하였으나 체육·예술 분야 지출은 상승하였으며, **취미, 자기계발, 보육 등 예체능 교육 수요 증가 추세**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일반교과' 전년 대비 6.0% 감소 vs '예체능 및 취미·교양' 전년 대비 4.1% 증가('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 (대응) **다양한 체육·예술 경험과 활동 기회를 공교육 내에서 확대 제공**

- (학교 체육교육시간 확대) 초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별도 운영* ('28년 예정 144시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102시간→136시간) **신규**
 - * 기존 '즐거운 생활(놀이 경험 중심 교과)'을 '건강한 생활(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 및 '즐거운 생활(예술활동 경험 중심 교과)'로 국가 교육과정 개편 완료('26.1.)
 - 체육활동 중심 연수 등 교원 역량 제고, 유휴시설 활용 체육공간 개선, 저학년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교구 지원
 - ※ 교육청·학교 협력을 통한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추진('30년, 6,100명 목표)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단계별 대회(학교-지역-전국)를 운영하고 축전 운영 확대
 -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현황('25) : 130,183팀, 학생 3,031,293명(60.0%)
 - ※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25) 18개 종목 → ('26) 수능 이후 고등학생 참가 배구, 배드민턴 등 3종목 추가
-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동아리 참여기회 확대
 - * 오케스트라(악기연주), 협동미술, 뮤지컬, 연극 등 지역·학교 수요 반영
 - ※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 ('25) 6,117개 → ('26) 6,500개
- (지역 연계 예술 교육)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예술교육 협의체*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등 지역 자원 활용 예술 프로그램 운영 **신규**
 - * 교육(지원)청 및 지역(예술)대학·기관 및 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7년 신규 모든 초등학교의 방과후 1인 1예술 또는 1인 1스포츠 신규 지원

“악기나 예능 쪽으로 가려면 사교육을 꼭 거쳐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 기회를 많이 만들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전남 학부모)

- ▶ 예체능 사교육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 단계의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의 1인 1예술/스포츠 신규 지원
 - ※ ▲(체육) 축구, 줄넘기 등 ▲(예술) 바이올린, 기타 등 다양한 종목을 폭넓게 학교가 지도
 - ※ ('27) 500개교 → ('28) 1,500개교 → ('29) 3,000개교 → ('30) 6,000개교

3] 정확한 학생의 학습수준 진단과 정보 제공

◆ (현황)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한 상세한 진단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사설 레벨테스트나 학원 진단에 의존하는 경향

※ "학부모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기 어렵다. 자녀의 수준을 알기 위해 학원 레벨테스트로 물리는 이들도 많은 상황" (세계일보, 25.5.19.)

◆ (대응) 학업 수준을 진단해 학습 격차를 조기에 파악하고, 학습 이력을 누적 관리해 불필요한 사교육 진입 요인 완화

○ (진단검사 결과 제공)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생의 기초학력 실제 수준을 학년별로 누적 제공하여 학부모 불안감 해소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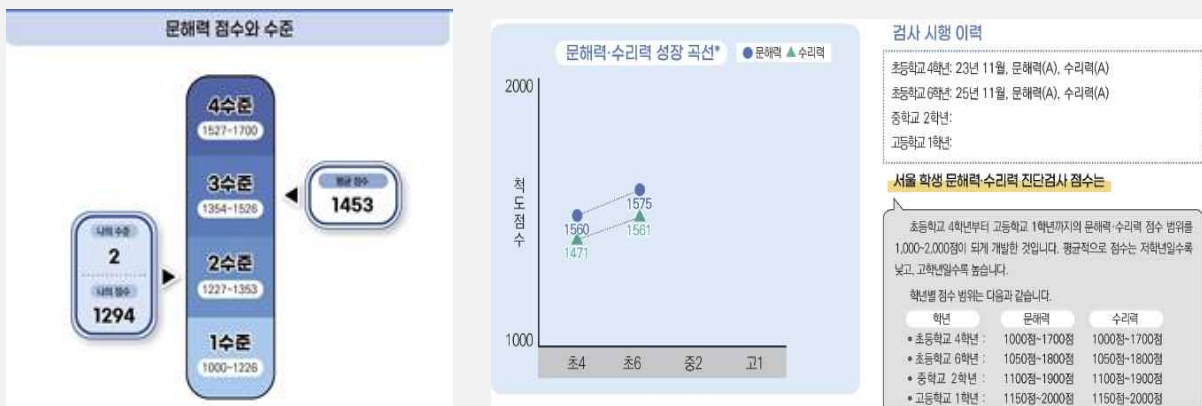
- 기초학력 수준을 수직척도* 점수로 개발하여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 정보와 성장 추이 제공('27~)

* 서로 다른 학년의 기초학력 수준을 하나의 공통 척도로 연계하여 해석하는 방식

※ 초1~중3 학생 대상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검사 적용

【서울시교육청 사례】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S-PLAN)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3년부터 초4, 초6, 중2, 고2를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수직척도를 활용하여 실시(교원 87.5%, 학부모 81.2% 만족, '25.1 조사)



※ 유사 사례 :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美 MAP Growth Test

○ (시·도 단위 향상도 평가) 시·도에서 자체 개발한 성취 수준 향상도 평가 등을 클라우드 기반 CBT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26~) **신규**

※ ('25.12.) 전북 초등총괄평가 시범 실시(초등 6학년, 49개교 101학급)

→ ('26) 경기, 전북, 경북 등 실시 지원 예정

○ (성취도평가)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시기 조정 등 개선 추진 **신규**

1 독서·토론·글쓰기를 통한 문해력·사고력 강화

- ◆ (현황)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생의 문해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논술 사교육 수요 증가 추세
※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 91.8% (교총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24.10월)
- ◆ (대응)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및 비판적 사고력 등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역량 배양

- (독서 저변 확대)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일과 중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목별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 **신규**
※ 교육과정 연계 교육,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 자유학기제 연계 등
※ ('26) 초·중·고 1,000개교 → ('27) 2,000개교 → ('28) 3,000개교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독서에 대한 흥미가 낮은 초·4·6학년 및 중·고등 학생 대상으로 시도별 여건·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신규**
* 운영사례: (부산)시낭송교실(350학급), 진로연계 글쓰기 동아리 운영(중·고 각 15팀), (대구)학교급별 독서캠프(6회), 고교 독서포럼(1회) 청소년 인문학 특강(4회)
- (독서활동 체계적 관리) '독서로'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학생 개인별 체계적 독서 활동 및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활성화 **신규**
- AI 기반 독서 이력 관리·수준 분석·독서 활동 피드백 기능 (첨삭, 요약, 문답)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 독서 활동 지원
- (질문하는 교육 확산) 주체적인 AI 활용을 위한 '질문하는 학교' 선도 학교* 운영('26. 170교 → '27. 200교)을 통해 토론과 질문 중심 수업 확산 **신규**
*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 질문 만들기 및 질문기반 탐구수업 프로그램 운영, 질문을 통한 삶의 문제해결 과제 등을 수행하고, 성과 확산

27년 신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교육 확대

"독서동아리 활동은 책을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강원 학부모)

- ▶ 독서동아리 활동이 토론·글쓰기 등 유의미한 독후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 및 글쓰기·비판적 사고 역량 향상 유도
※ ('27) 중학교 500개교 지원 → (~'30) 전체 중학교 약 3,300개교 연차적 확대

2 개인별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 ◆ (현황)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학교 내 해결이 어려워 학습지·학원 반복학습에 의존하며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경향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3·고2) 1수준: ('17) 5.3% → ('24) 9.7%
 - ※ 학교수업 보충 수강목적: 초등학교 84.8% 중학교 87.2% 고등학교 79.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 (대응) 기초학력 미달을 조기에 진단하여 개인별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습결손 누적을 방지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

- (1교실2강사제 활성화*) 수업 중 협력강사가 경계선 지능, 난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여 학습결손 원인에 대한 보정지도 실시
 - * (운영교) ('25) 4,481교 → ('26) 6,000교 목표

- 교과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동안, 협력강사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질의에 대응하고, 모둠 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대전시교육청 사례】 2025학년도 찬찬협력강사제 운영

- 모든 초교(151교)에 1명 이상의 찬찬협력강사를 배치하고 정규 수업 중 협력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한글 해득, 기초 연산 능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
- * 학습지원대상학생,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1:1 개별 학습 활동, 모둠 활동 등 지원
- ※ (만족도) 학생(92.97%), 학부모(88.14%), 교사(95.04%) 모두 만족도 높음

- (기초학력 전문교원 도입) 기초 문해력·수리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해 학습결손 예방('26~)
 - * 일부 시수를 활용,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협력수업, 분리지도 등 실시하는 교원
 - ※ 배치 현황 ('25) 318명(2.7% 시도 자체) → ('26) 653명(5.4%) → ('30) 약 6,000명 목표(50%)
-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수업, 분리지도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개인별 학습 지도 및 상담 제공
- (학습 저해 요인 진단 및 지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난독,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 진단 및 집중 지원('26~) **신규**
 - 초·중등 교사용·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선별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전문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서울) 초 1학년(난독), 고1학년(경계선 지능) 대상 심층 진단·지원 학년제 시행('25~)

3 모든 학생에게 고른 학습기회 제공

◆ (현황) '25년 사교육비가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감소(5.7%)하였으나,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2.0%), 지역·소득에 따른 격차 지속

◆ (대응) 저소득층 및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학습지원 강화

- (방과후·방학중 1:1 멘토링) 기초학력 지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비 교원, 대학생, 교사 등이 희망자 대상으로 1:1 교과 보충 지도('26~) **신규**
 - 학습지원대상학생* 초·중·고 6만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 과학 등 교과를 지도하고 학습 방법, 컨설팅 등 제공
 - * 「기초학력보장법」 제 8조에 따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멘티 학생 선정 시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방과후·방학중 20시간 내외의 멘토링 실시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배경학생 등
- (화상 튜터링)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교사·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화상 튜터링 지원 확대
 - 중1~고3 학생 대상으로 수학·영어 과목을 수준별(기초-기본-심화)로 구분하여 EBS 교재 중심 쌍방향 맞춤형 수업과 수준별 맞춤 코칭 제공
 - ※ ('26.상) 1,399명 → ('26.하) 3,000명 → ('27) 5,000명 확대 목표
 - 취약계층 학생*이나 인구감소지역 학생 등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학기당 총 30회(회당 1시간) 코칭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배경학생 등

- '25년 EBS 화상 튜터링 만족도 조사 결과 : 종합 만족률 94.0%(멘토 95.5%, 멘티 92.4%)
 - 참여학생의 89.5%가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전년 대비 약 2%p 상승)
- 화상 튜터링 이용 후 사교육비 절감 : 학부모 73%, 월 31.1만원 감소
- 화상 튜터링 이용 후 사교육 시간 절감 : 학부모 73%, 주 3.3시간 감소



1 진로·진학 공공 상담체계 강화

- ◆ (현황) 고교학점제 도입 및 AI 시대 직업 다변화에 따라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급증하여 **사설 컨설팅 시장 확대 추세**
 ※ (2025 KEDI POLL)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고등)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 26.8%(1위), 맞춤형 상담 14.7%(2위)
- ◆ (대응) 생활기록부 등 정량·정성 데이터셋을 활용한 **맞춤형 정밀 컨설팅 제공**

- (대입상담 내실화) 사교육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AI를 활용한 진학상담으로 맞춤형 학업설계를 제공하고 사교육 부담 완화 **신규**
 ※ 대국민 대입정보포털(대학어디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26년)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도입으로 복잡한 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문 상담* 신설
 * '26.1~3월 시범운영 → 7월부터 정식 상담 운영(연간 약 1만명 이상)
 - ('27년)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학생부교과, 수능)과 관련하여, 개인 성적 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학 진학 진단 서비스 제공
 - ('28년) AI기술을 활용, 학생부 분석(강·약점) 및 희망 진로와 연계한 과목 선택, 교내활동 등 맞춤형 학업설계 컨설팅 신설
- (학교 안 진로·학업 설계 지원) 학생의 소질·적성 및 희망진로·성취 수준 등에 맞춰 과목 선택부터 학업 설계까지 연속·통합적인 상담 지원
 - 성적, 적성 등 학생의 진학정보를 바탕으로 교과선택, 학습코칭, 학습전략 등 학업설계 전반을 지원하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확대 운영*
 * 진로전담교사 등 고교 교사 ('25) 450명 → ('26.상) 720명 → ('26.하) 1,000명을 선발하여 '함께학교' 사이트를 통해 운영
 - 모든 고교 진로 전담교사(약 2,100명)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학년) 전환기 등을 상담·지도하는 역량 강화
 * 중앙 핵심교원 연수 → 시도 진로전담교사 연수 → 학교단위 전체 교원 대상 연수

27년 신규 중3·고1 진로·진학 상담 연 1회 이상 실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등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는 자세히 안내해 주니까 사교육을 더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경기 학부모)

- ▶ 희망하는 중3(고입)·고1(학점제 과목 선택) 학생에 대한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진학 상담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입시·진학 정보 격차 해소
 ※ 진로 상담 참여율: (중) 59.3%, (고) 70.2%('25 진로교육 현황조사)
 ※ (울산)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 수시모집 모의 면접(2대1), 온라인 및 화상상담 등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으로 고등학생 3,173명 지원, 97.6%가 '매우 만족'

2 지자체·학교 등 공영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

- ◆ (현황) 방과후 학습 공간 부족으로 스터디카페 등 사적 공간 이용 비용 증가, 가정 내 학습 여건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
 - ※ "포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168명의 학생이 방학 중에도 권역별 센터에서 EBS 콘텐츠와 상담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으며, 대기 인원도 50명 이상"(26.2월 경기신문)
- ◆ (대응) 안정적인 공공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원 멘토의 관리 등을 통해 사교육성 비용 지출을 완화하고 자기주도학습 문화 정착

-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 운영(25.12~) 및 추가 공모(26.3~),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컨설팅 실시
 - ※ (25) 48개 선정 및 순차적 개소운영 → (26) 100개 → (27~) 성과평가 후 센터 확대 검토
- 지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운영 및 학습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상황을 관리 및 지원
 - ※ AI 단추 플러스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 학습 진도 관리,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개인별 학습관리 제공, 학부모 상담, 출결 시스템 활용
- 학습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바탕으로 학습 수준과 습관에 맞게 EBS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연계된 EBS 교재 및 e북* 제공
 - * 중학·고교 구독 시 중학 90여 책, 고교 250여 책 이용 가능(25 기준)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활용해 대학생이 센터 학생에게 주요 교과목(영어, 수학) 질의응답 및 학습상담 제공

27년 신규 시도의 자율적인 공공 학습센터 운영 지원

"EBS 자기주도 학습 센터가 가까운 곳에 생겨서 좋습니다. 지역에 이런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경기 학부모)

▶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등 사업을 활용하여 시도·학교의 자율적인 공공 스터디카페 적극 지원 및 확대 추진

※ (광주) 자기주도 학습 지원(학생 눈높이 공부방 365-스터디룸)

- 학생 공부방 365-스터디룸 조성(고교 전체), 클러스터형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2024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자체 설문조사(1차 '24.10월, 2차 '25.1월) : 학부모 응답 월평균 사교육비 111.02만원 → 65.85만원(45.17만원, 40.69% 감소)
- ① 학생이 직접 스터디룸 운영
- ② 교사의 상시 진로진학상담(1교 1대입 디렉터)
- ③ 멘토-멘티 운영 등 학생 중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



3 양질의 EBS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

- ◆ (현황)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활용 증가에 따라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제공**(23.7월~) 등 **EBS 확대 지원 중**이나, **활용 편의성 측면에서 낮은 만족률****을 보여 개선 필요
 - * '서비스 내용 유익성'(91.9%), '학습에 도움'(91.2%) 등에 비하여 '서비스 메뉴 구성의 편의성'(81.0%) 만족도가 가장 낮음('25년 EBS 고교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 ◆ (대응)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고, EBSi 접속 화면에서 **한눈에 선택**하여 **학습 코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

○ (중학프리미엄 콘텐츠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중1·2 국어·영어** 검인정 교과서(각 10종)의 내신 대비, 시험 특강, 서술형 수행평가 강좌 제공

※ 회원 수: ('24.12월) 458,535명 → ('26.3월) 659,134명(200,5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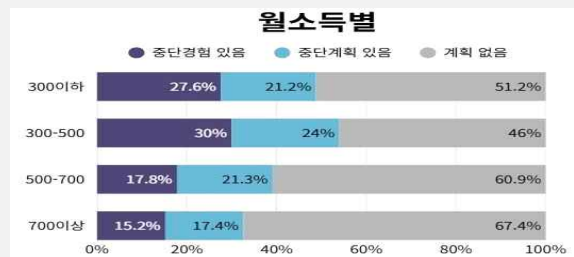
※ 출판사별 교과서 강좌: ('25) 중1 2,176편 → ('26) 중2 2,240편 → ('27) 중3 예정

- 중학생 대상 **시중 인기 참고서*** 또는 **강사 교안을 기반으로 국·영·수·사·과** 등 주요 과목의 내신, 시험, 단기 특강용 **기초 강의 자체 제작**

* 수학 <개념원리>, 영어 <중학 영문법 3800제>, 과학 <하이탑> 등

【25년 EBS 중학프리미엄 및 화상 튜터링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EBS】

- **중학프리미엄 사교육비 경감액** : '25년 약 4,680억 원, 전년(4,300억 원) 대비 확대 추정
- **EBS 중학프리미엄 이용 후 사교육 중단** : 모든 소득 구간에서 사교육 중단 경험과 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교강의 콘텐츠 확대·개선) **수능연계 시리즈인 수능특강·수능완성*** 등 (7,746편), **내신개념 대비 강좌(2,908편)**를 제작 보급하고, **입시 전형 지원 콘텐츠***도 제공

* '27학년도 수능시험 연계교재 : 총 83책(수능특강 45책, 수능완성 38책), 연계율 50% 수준

** EBS 입시 특화 가이드, 2027학년도 논술 전형 패키지, 2027학년도 믿고 듣는 경찰대/사관학교 등

- 학습자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학생 수요와 학습수준에 맞는 강의** 들을 **큐레이션하여 제공**하도록 UI 및 'EBS AI 단추+' 고도화 **신규**

* AI 기반 단계적 학습 추천 프로그램

- 챗봇 활용 EBS 교재·강의 기반 **학습코칭** 제공 및 EBSi 내 기존 강좌 안내·소개 영역을 **재구조화**하여 학습 목적에 따른 콘텐츠 추천·안내 체계를 강화

- ◆ (현황) 학원의 불안심리 조장 및 교원의 문항거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유인구조 및 관리 체계 미흡
 - ※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 실적 : ('22) 201건 → ('23) 242건 → ('24) 212건 → ('25) 288건
- ◆ (대응) 학원 운영 및 교원 겸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책무성 강화

1 학원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 (점검 및 관리 강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원 교습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 지속 운영
 - ※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등 특별점검('26.2월~4월), 신학기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26.2월~)
- (교습비 안정화 추진) 학원 교습비 현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등 학원 등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25년 매월 → '26.3.16~ 매주)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 인터넷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특강 등 불법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지속 시행
- (학원 제재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 제재 근거 마련,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향, 신고포상금 인상 등 학원법령 개정 추진('26.상~) **신규**

※ (예시) ①과징금 신설 - 초과교습비 등 불법이득의 환수(매출액의 50% 이하) 근거 마련
 ②과태료 상향(300만원→1,000만원), ③신고포상금 인상(초과교습비 징수 신고 10만원→100만원 이하, 무등록 교습 신고 20만원 → 200만원 이하 등)

2 교원의 겸직 관리 철저

- (시스템 구축)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겸직을 신청, 심사·허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 구축 **신규**
 -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결과물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 관계부서 및 교육청 의견수렴('26.3월~) 거쳐 기능개선 추진(~'26.하)
- (실태조사) 상·하반기 교원 겸직 실태조사를 통해 겸직허가 실태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겸직 취소 등 적정 조치

③ 시도교육청 협력 강화

- (시도 우수 정책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도별 '사교육비 경감 노력 지표*'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적 노력의 유인 강화 **신규**

* ①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 ②사교육 참여율 증감, ③학원·교습소 물가 대비 교습비 조정기준 상승률, ④방과후학교 참여율 증감, ⑤학원·교습소 지도점검 실적

- 차년도 사교육 관련 시도 자율사업 적극 지원 및 재정 인센티브(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제공, 교육부 공모사업(자기주도학습센터) 가점 부여

【시도 우수사례】 학교 내 학습지원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한 사례

(전북교육청) 학력향상도전학교

- 수준별 보충·심화 프로그램 및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학기 중 상시(야간, 주말 포함) 운영하고('25년 중·고 100개교, 25,422명), 방과후·휴일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 및 자기주도학습 관리 지원 강화 (40개교, 연간 누적 30,115명)
- 식·간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 학력향상 도움 긍정 평가 96.9%

(강원교육청)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만들기

- 학생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중·고 267교, 47,352명 참여)
- 1:1 개별 또는 2-4명 소인수 그룹 교과 보충 지도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
- 학습 습관 형성 및 학습관리 등 학습역량 코칭을 위한 도교육청 주관 개별화 학습 코칭 운영(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4개 권역, 학생 200명)

- (법적 기반 강화) 시도교육청 책무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련·보급 **신규**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사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26.1.8.시행)

-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여건 마련
- 사교육에 대한 범위(제2조),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제3조)
- 교육감의 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제4조)
-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규정(제5조)
-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정책 심의·자문을 담당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제6조)
- 사교육 경감 대책 전담부서 설치·운영(제7조)

지역	우수사례	주요 내용
서울	사교육 총괄 관리 체계 구축	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학원법 개정 제안 및 사교육 관리·감독 강화, ②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공교육 정책 확대 ③ 진로·진학 정보 제공 강화 및 SEN 나침반 고도화 ④ 조례 시행('26.1월)에 따른 실태조사 및 합동대책추진단 정례회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부산	자기주도학습 지원	- 일반고 방과후학교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학력신장 관련 교육활동 운영비 지원 (특목고, 자사고 포함 105교) - 오픈형 학습공간, 몰입형 개인 학습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및 물품 구입 지원(54교, 108.5실)
대구	IB 수업·평가 역량 강화 지원	IB 프로그램을 통한 서·논·구술형 평가 강화 및 교실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내실화 - 중점 IB 기초실전심화 단계별 교원 연수 운영(75과정 6328명) - IB 학교급별·교과별 교원 연구회 운영(40팀, 380명) - IB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천 사례집 및 연구회 결과 자료집 제작(3종)
인천	도서지역 특화 학교예술교육 운영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지역특화 학교예술교육 운영·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예술교육 실현 - 도서지역(백령, 대청, 덕적, 연평, 영흥) 찾아가는 예술 교육 운영(예술체험 강좌 총 41개 운영) - 지역 특화 학교예술교육 운영(합창, 국악, 기악 강사 지원, 월 1회)
광주	365-스터디룸 운영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학습 인프라 조성 및 환경 조성(일반고 전체 41교) - 학생과 교사의 상시 진로진학상담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습관 정착 및 개인별 학습 계획·성취도 확인 - 보충 학습동아리, 멘토-멘티, 팀별 토의·토론 운영
대전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자기주도학습 공간 및 체계적 관리를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으로 부족한 교과·영역에 대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고 8교)
울산	진로·진학 설계 지원을 통한 사교육 경감	- 고교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 및 운영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 맞춤형업 설계 클리닉 운영 - 공교육 대입상담 시스템 기반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세종	방학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문화·스포츠·진로탐색·지역탐방 등 다양하고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식 지원,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등에 통학 차량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간 이동 및 생활지도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지원

지역	우수사례	주요 내용
경기	경기 공유학교 운영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3~고3 대상 지역사회협력 기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생 맞춤 교육 실현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7,215개 프로그램, 126,371명)
강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 지원을 통한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 학생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중·고 267교, 30,738백만원)
충북	'다채움' 고도화 및 개통을 통한 교실수업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교과별 수업모듈 개발 및 탑재 - 학생성장보고서, 대시보드, 수업·평가·기록 지원 - '채움수학,' '채움수능,' '채움책방' 등 공공·민간에듀테크서비스 연계 AI 학습도구, 콘텐츠 등 제공
충남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기회를 넓히는 충남 온학력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26년 2개소) - 충남 온학력 시스템(온채움교사 초등 490명) - 온한글 온재움 온생각 온평기를 통한 체계적 학력 시스템 운영
전북	학력향상도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중상위권 대상 학습데이터 기반 교과심화 보충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식·간식비 지원,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특별도전과제 운영(40교, 연간 누적 30,115명) - 데이터기반 학습관리 앱 '올라' 연계 온라인 학습피드백, 개별 학습코칭 지원
전남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전담교사 초 37명)
경북	대입 진학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기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 전국 최초 구축('25.9월) - 수능형 모의평가(국어, 수학, 영어) 경북 자체 제작 및 보급, 경북 모의 평가 2회 시행 예정('26년 8월 10월)
경남	늘봄학교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방과후 매일 2시간, 525교) - 아침돌봄교실(94교), 집중돌봄교실(968실, 돌봄센터 26실), 틈새돌봄(115실) - 방학 중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운영(18개 시군)
제주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 및 학교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 강화(15개 유형, 초·중·고 93교)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로 구성된 진로교육지원단의 맞춤형 진로상담(연중, 13회, 56명) - 1:1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함양 지도('25.5.~7., 11회, 276명) - 고교학점제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진로·학업 설계 지도 방향 안내(중 3학년, 가이드북 6,726부 배포, 36개교 학생·학부모 5,581명 참가)